

인구 13,000명,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공화국(Republic of Nauru). 이곳은 세계에서 3번째로 작은 나라지만 나우루공화국이 유명해진 것은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다. 1970년대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나우루공화국의 드라마틱한 운명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나우루공화국의 국토는 80%가 고급비료의 주요 원료인 인광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현재도 석유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인광석은 1970년대 이후 나우루공화국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변모시켰다.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천 달러에 미치지 못했는데, 나우루공화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했다. 나우루공화국 정부는 섬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어 채굴이 손쉬웠던 인광석을 수출하여 막대한 돈을 벌었고, 이를 토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전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오영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나우루공화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지속해온 농업, 어업, 양식업 대신 외국으로부터 각종 가공식품과 채소를 비롯한 식량을 수입해서 생활했으며, 가정마다 3대 이상의 자가용을 소유하여 16km밖에 되지 않는 도로가 최고급 스포츠카들로 인해 늘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정도로 호화롭게 생활했다.

하지만 이런 찬란한 영광은 반세기를 가지 못했다. 과도한 채굴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인광석 생산량은 급감하기 시작했고, 2003년에는 공식적으로 인광석 고갈을 선언했다. 인광석의 고갈은 나우루공화국의 몰락을 의미했다. 정부가 만일의 사태를 위해 마련했던 기금과 해외투자금은 잘못된 운영과 부정부패로 인해 모두 사라졌고, 표토를 잃은 땅은 농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식량 생산도 불가능해졌다. 일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90%에 달하는 실업률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환뿐이었다.

이제 나우루공화국은 호주의 난민수용소를 유치한 대가로 지불되는 호주의 경제원조에 기대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무상의료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앓고 있는 성인병을 치료하였고 무상교육을 통해 농사짓는 법과 음식 만드는 법 등을 가르치며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나우루공화국이 몰락한 역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혹자는 몰락의 원인을 무분별한 복지남발에서 찾기도 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넘어서 국가가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각 가정에 가정부를 파견하는 등 사치가 만연하는 동안 국민들은 더 이상 일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일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는 나우루공화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단편적 판단에 불과하다. 비록 나우루공화국은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에 불과한 최극빈국 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무상의료를 통해 전 국민이 갖고 있는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고 있고, 무상교육을 통해 다시 일하는 법,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며 생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우루공화국의 역사에서 우리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의 결말을 미리 볼 수 있다. 단순히 복지의 문제나 인광석이라는 한정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경제, 환경, 문화에 대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조율되지 못했고 사회발전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동체 인식과 공유가 없는 무분별한 성장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인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그래서 중요하다. 양적인 팽창, 거래되는 화폐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은 목살되어 버리는 성장(Growth) 위주의 패러다임은, 국토를 돈으로 교환하고 그것 이외의 가치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던 나우루공화국의 황금기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또한 자본이 모든 가치의 척도이자 목적이 되어버린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의 오늘과도 다르지 않다.

이제라도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발전(development)'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인류는 생태의 한 부분으로 결코 자연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발전의 열매를 사회공동체와 자연 생태계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단순히 금권이 아니라 조화와 평등 속에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태가 함께 번영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나우루공화국의 '오늘'이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값진 교훈이 되는 길이다. 